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9~5/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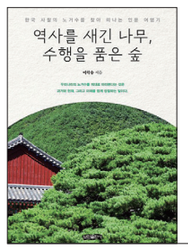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2	생각이 쉬는 사이	혜민	불광출판사
3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4	마인드 리셋 반야심경	홍우	오픈업
5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담앤북스
6	고우 스님 강설 육조단경	고우	조계종출판사
7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	정원규 편역	불광출판사
8	스님의 호흡법	전채연	황금테고리
9	우리 단청 화첩	선웅/김지민 외	담앤북스
10	A monk's Reply to Everyday Problems (야단법석 영문판)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무비 스님의 천수경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3	맛지마니까야(4)	대림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차와 클래식의 공명, 포시즌	이상철	차와문화
5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6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7	요가 교수법	곽미자/김성홍 감수	한국요가출판사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9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운주사
10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사찰 노거수가 전하는 법문



역사를새긴나무, 수행을품은숲
이학송 지음
보민출판사
1만6800원

전국 42곳 사찰의 숲과 나무 기록
노거수에 깃든 역사와 공동체 기억
"무상·연기 가르침 전하는 유산"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청도 운문사의 처진소나무. 수령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운문사 스님들은 이 나무를 '조실 소나무'라 부르며 해마다 삼월삼짇날 막걸리를 물에 타 뿌리 둘레에 뿌려주는 등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다. 사진 출처=국가유산포털

청도 운문사 앞뜰에는 처진소나무 한 그루가 작은 동산처럼 펼쳐져 있다. 높이 약 9m, 수령은 5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가지를 사방으로 드리워 푸른 언덕을 연상케 한다. 운문사 스님들은 이를 '조실 소나무'라 부르며, 해마다 삼월삼짇날이면 막걸리를 물에 타 뿌리 둘레에 뿌려주는 등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다.

천안 광덕사에는 '국민 간식' 호두과자의 기원을 품은 수령 400여 년의 호두나무가 있다. 고려 말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유청신이 묘목을 들여와 심었다는 이 나무는 오늘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찰의 노거수(老巨樹)는 지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 가내려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제주 서귀포 선덕사의 구실잣밤나무는 제주 4·3의 참혹함을 견뎌냈고, 1980년 선덕사 화재에서도 살아남았다. 이후 진행된 중창불사는 수령 200여 년의 구실잣밤나무를 중심으로 진행돼 여법한 새 도량을 이뤘다.

'숲사찰'로 유명한 부산 홍법사는 풍부한 수종과 수량을 자랑한다. 이 가운데 템플스테이관 뒤편의 푸조나무는 개산 20주년을 맞은 2023년 인근 마을 주민의 기증으로 이식됐다. 수령 400여 년에 이르는 푸조나무가 도량의 중심축을 이루며 공동체의 원력을 드러낸다.

사찰 노거수는 각각 하나의 '살아 있는 역사서'다. 〈역사를 새긴 나무, 수행을 품은 숲〉은 이학송 전 교법사(생명의숲 전문위원)가 사찰 노거수를 직접 찾아다닌 기록이다. 지금까지 답사한 100여 곳 중 42곳 사찰의 숲과 나무를 담았다.

앞서 살핀 운문사의 처진소나무와 광덕사의 호두나무처럼, 나무 한 그루에는 한 사찰의 기억과 공동체의 정서가 응축돼 있다. 저자는 바로 그 응축된 시간을 읽어내는 데서 글쓰기를 시작한다. '나무의 시간'을 읽어내기 위해 저자는 설명하지 않고 경청한다. 나무를 둘러싼 시간의 결을 따라가면서 나무가 서 있는 자리,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 반복되어 온 의례와 기억을 층층이 쌓아 한 편의 서사를 이룬다.



이학송 생명의숲 전문위원은 10여 년 전부터 사찰 노거수를 찾아 기록하고 있다. 사진=임은호 기자

역사적 의미 외에 생태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노거수는 자연의 변화를 가장 오래 기록해 온 존재다. 나무의 몸에 남은 상처와 생장의 흔적은 인간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증언한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꾸준한 관찰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 메시지 대신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무는 무상과 연기의 이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다. 수백 년을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하고, 홀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토양과 물, 햇빛과 인간의 손길 속에서 유지된다. 저자가 나무를 수행자에 비유한 것은 이러한 존재 방식 때문이다.

저자는 "사찰의 노거수는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라며 "스님 지팡이 설화 등의 보호장치를 가진 나무, 그 시대 사람들이 나름의 사연으로 기념식수한 나무는 살아 있는 역사 문화재"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한 그루의 나무가 베푸는 공덕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의 종말은 순식간"이라 경고하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란다면 눈으로 꽃만 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나무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제6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담마로드'

이석준 조계종 포교사 작품
"불교문학으로 포교 서원"
5월 24일 운문사서 시상식

제6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이석준 조계종 포교사(법명 송운)의 소설 '담마로드'가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담마로드'는 평범하게 살아가던 부부가 하나뿐인 외아들의 자살 후 깊은 절망과 허무, 복수심에 빠졌다가 불교를 만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부부는 아들 친구들과 일본의 신수대장경, 스리랑카의 패엽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을 찾아 떠나는 '담마로드' 탐방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새긴다.

남지심 법계문학상 심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작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남편과 아내가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여 진리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서 "무겁지 않은 필체로, 절망에 빠졌던 부부가 불교에 귀의하는 전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석준 포교사는 "물질 만능주의와 탈종교화로 불자들이 급감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순수한 불자들이 고귀한 불법을 만나 끝없는 고통의 세계를 극복하고, 나와 남을 위하는 대승의 보살로 성장하는 이 소설은 불교문학으로 포교하고 싶은 저의 서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포교사는 2022년 태고종이 개최한 제1회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바즈라체티카'로 가작 입상하며 불교문학의 길에 들어섰다. 2014년부터 남양주 봉선사 신도이자 포교사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법계문학상은 평생을 비구니 승가교육과 권익 증진에 매진한 청도 운문사 회주 법계 명성 스님이 불교문학 발전을 위해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여수령 기자

손으로 쓰는 마음공부



스님의 필사책
정운 스님 편저
유노북스
2만2000원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이 멀 듯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의 밤길이 멀고 험하다."
—〈법구경〉 중에서

〈법구경 마음공부〉, 〈부처의 인생 조언〉 등으로 출판계에 불교 열풍을 일으킨 정운 스님(대승불교연구소장)이 엮은 필사책이다. 〈법구경〉 〈숫타니파타〉 〈아함경〉 〈금강경〉 등에서 고르고 다듬은 100구절을 담았다.

총 5개 장에서 탐욕과 번뇌로 흐려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자비와 용서로 마음의 경계를 넓히는 법,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 등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각 장 사이에 정운 스님의 마음 에세이 10편도 수록했다. 마음공부와 관련된 짧은 경구를 따라 쓰다 보면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정운 스님은 "경전 내용을 베껴 쓰는 사경(寫經)은 20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수행법"이라며 "이러한 필사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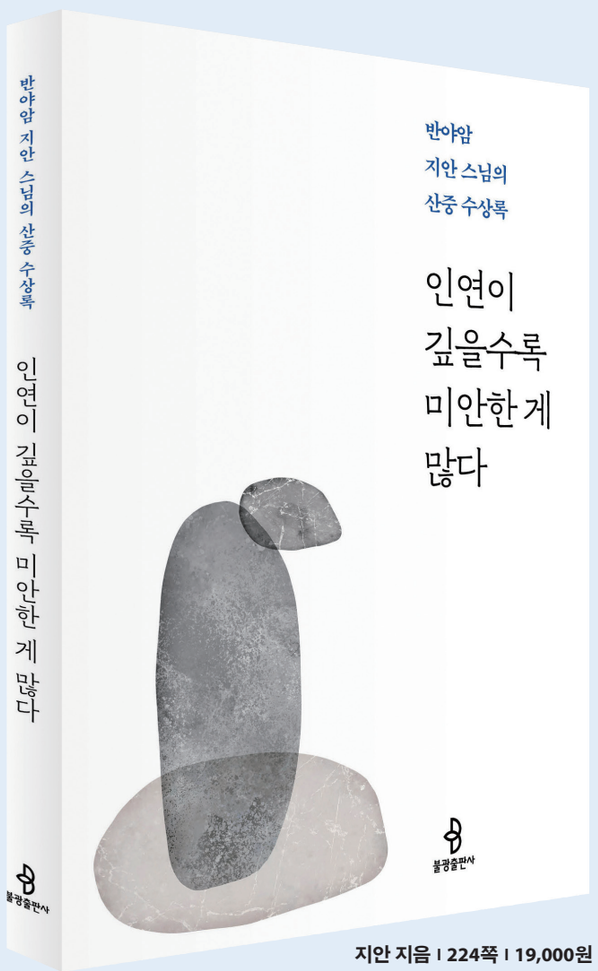
해 뜨면 눈부시게 행복하고
별 뜨면 조용하게 반짝이는 삶

"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말보다 침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앞서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

"나는 삶을 '오솔길 인생'이라 부르고 싶다. 오솔길에서는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혹여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면, 언제든 오솔길로 들어와 보길 권한다.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잊고 있던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 지안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안 지음 | 224쪽 | 19,000원

대강백 지안 스님의 한적한 행복!